

## 6. 외환 및 국제협력

### 가. 외국환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시장안정화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불합리한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2020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 요인들이 원/달러 환율 등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적시에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 3월 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부문의 불안이 심화되었던 시기에는 국외사무소와 연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각국의 정책대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등<sup>82)</sup>을 개최하여 국내 외환부문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앞서 마련된 외환부문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외환건전성제도 조정 등의

조치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내 외환부문의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한편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외환부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등 시장안정화 조치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시행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정부와 함께 마련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시장안정화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sup>83)</sup> 2020년에는 2019년 4/4분기부터 2020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였다.

표 III - 19. 외환당국 외환 순거래 내역

(억 달러)

1단계(반기별)		2단계(분기별)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3분기	19년 4분기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1.87	-38.00	-28.70	0.00	-58.51	-3.45	0.00

자료: 한국은행

82)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미 연준 FOMC 회의 영향, 이란의 대미 보복공격 영향 등을 주제로 6회),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주요국 주가 및 유가 급락, 미 대선 결과 등을 주제로 3회) 등을 개최하였다.

83)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2단계로 20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정부와 함께 대국민 외환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외환거래 감독기관 회의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환전 및 송금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sup>84)</sup>,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제도 도입<sup>85)</sup>, 외환서비스 공급 확대<sup>86)</sup>,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원칙 하에 운용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흐름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2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31억 달러로

2019년 말에 비해 343억 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4,301억 달러로 2019년 말 대비 322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SDR과 IMF 포지션은 각각 34억 달러와 48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은 48억 달러로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I - 20.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백만 달러)

	2018	2019(A)	2020(B)	증감(B-A)
외환보유액	403,694	408,816	443,098	34,282
외환	393,332	397,876	430,117	32,241
SDR	3,427	3,352	3,371	18
IMF	2,140	2,793	4,815	2,022
금	4,795	4,795	4,795	0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이중 투자자산은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매각 시의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예치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부채, 정부기

8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상법상 회사와의 위·수탁계약을 허용하여 고객이 항공사, 면세점, 편의점, 택배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인근 금융기관(우체국 등),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85)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규제확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규제 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86)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 카드사 등)의 송금·환전 관련 외환거래업무 수행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 시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자금 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상당폭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자금이관을 통해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에는 채권과 함께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 말 한국은행 외화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5.1%, 직접투자자산은 73.9%, 위탁자산은 2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 - 21. 외화자산<sup>1)</sup> 구성 내역 (기말 기준)

	2018	2019(A)	2020(B)	증감(B-A)	(%, %p)
<b>1. 자산별</b>					
현금성자산	5.3	4.6	5.1	0.5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	76.4	74.6	73.9	-0.7	
위탁자산	18.3	20.8	21.0	0.2	
<b>2. 통화별</b>					
미달러화	69.8	69.1	67.7	-1.4	
기타통화	30.2	30.9	32.3	1.4	
<b>3. 상품별</b>					
예치금	5.0	5.0	7.1	2.1	
유가증권					
정부채	42.9	44.6	44.5	-0.1	
정부기관채	18.0	15.8	14.4	-1.4	
회사채	13.7	13.4	13.6	0.2	
자산유동화채	12.8	12.5	11.5	-1.0	
주식	7.6	8.7	8.9	0.2	
<b>계</b>	<b>100.0</b>	<b>100.0</b>	<b>100.0</b>	<b>-</b>	

주: 1) <표 III - 20>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자료: 한국은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

2020년 상반기 중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가 및 금리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sup>87)</sup>되었으나,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던 3월 중 보유채권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외화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하반기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운용계획에 맞추어 외화자산 운용을 정상화하였다.

한편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은 축소하였다. 투자자산 내에서는 주요국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확대되었다.

통화별로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하반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을 전년에 비해 축소하였다.

상품별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예치금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채 및 자산유동화채 비중은 축소하였다. 또한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하였다.

87) 미국 S&P500지수의 경우 2~3월 중 34% 급락한 이후 연말까지 68% 상승하여 연중 15% 상승을 기록하였다.

##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외화자산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외화자산의 안전성 및 유동성 수준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위기 상황별 비상대응계획을 정비하고 전산·결제시스템 등의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직운영 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사무소 운용데스크의 업무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본점 내 야간데스크를 운영하고, 거래, 결제, IT시스템 등 핵심인력에 대해 재택 및 분산근무를 실시하는 등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외에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각종 리스크 한도 및 지표 관리의 전산화, 자금결제 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통해 외화자산 리스크관리의 효율성 및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 국내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거래기관 및 위탁운용사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중 외화자산의 직접운용 과정에서 5개 국내 증권사와 외화채권을 거래하였으며, 3개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4.4억 달러) 및 선진국 주식(6.0억 달러) 일부를 위탁운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운용 실적 등 운용역량 축적 상황을 보아가며 국내 금융기관을 꾸준히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I - 22.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유형	상품	대상기관 <sup>1)</sup>	규모	개시시기
외화채권의 매매거래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증권사 (5)	107억달러 <sup>2)</sup>	2018년 1월
주식의 위탁운용	중국 주식	자산운용사 (3)	4.4억달러 <sup>3)</sup>	2012년 6월
	선진국 주식	자산운용사 (2)	6.0억달러 <sup>3)</sup>	2019년 4월

주: 1) ( ) 내는 거래기관 수

2) 2020년 중 거래금액 기준

3) 위탁원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

## ESG자산 투자 확대

한편 한국은행은 투자대상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두는 ESG 투자<sup>88)</sup>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위탁운용을 통해 ESG 관련 주식에 10.8억 달러 투자하고 있으며, 그린본드 등 ESG 관련 채권에도 43.8억 달러 투자하고 있다. 향후에도 글로벌 ESG 투자 확대 추세, 외환보유액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자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88)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자 및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인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표 III- 23.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

(억 달러)

운용	상품	규모 <sup>1)</sup>
직접	채권	34.9
위탁	주식	10.8
	채권	8.9
합계		54.5

주: 1) 시가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 중에는 현재 외화자산 통화구성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들(World Bank, IMF, BIS)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결과 현행 외화자산 통화구성 결정방식이 대체로 글로벌 최적관행(best practice)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뉴욕연준, 호주재무관리청(AoFM) 등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세계 외환보유액 운용의 최근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경험을 전수하였다.

### 다.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BIS 이사국 활동을 포함하여 G20, IMF와 같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금융계와의 정책공조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제 공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ASEAN+3,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등 역내 협의체의 활동 및 논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14회) 및 IMF·세계은행 회의(2회)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등 금융경제 현안과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계 차원의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BIS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BIS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금융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공조·조율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5회)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특별회의(3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저소득국 부채상환유예 방안 및 향후 부채 대응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금융규제·감독, 금융포용,

스태이블 코인 등 금융부문 이슈, 양질의 인프라 투자원칙,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조세 과제 등의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표 III - 24.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0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월 바젤, 3·4·5·6·7·9·11월 화상회의)	세계 금융경제 현안, 비은행 금융 중개, 국가간 지급서비스, 빅데이터와 중앙은행, BIS의 중장기 전략 등
IMF·세계은행 회의 (4·10월 화상회의)	세계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과제, IMF·WB의 회원국 지원 방안 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2월 리야드, 4·7·10월 화상회의, 3·11월 특별 화상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부채상환유예 방안 및 향후 부채 대응 체계,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금융규제 및 감독, 금융포용, 스태이블 코인, 양질의 인프라 투자, 국제조세 등

자료: 한국은행

##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ASEAN+3에서는 정부와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sup>89)</sup>(1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회의(3회)에 참석하여 IMF 비연계자금 비중 확대, 역내통화 활용 제도화 등을 반영한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개정 협정문을 승인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EMEAP 총재회의(2회), 특별 컨퍼런스콜(2회) 및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1회)와 SEACEN 총재회의(1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디지털화, CBDC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SEACEN의 EXCO(Execu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sup>90)</sup> 위원으로서 SEACEN 센터의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표 III - 25. 역내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0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제23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9월 화상회의)	역내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9월 화상회의)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 3국간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
제25차 EMEAP 총재회의 I (8월 화상회의)	코로나19와 중앙은행의 과제 등
제25차 EMEAP 총재회의 II 및 제9차 EMEAP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 (11월 화상회의)	경제 전망 및 코로나19의 장기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은행 부문의 역할 등
제56차 SEACEN 총재회의 (12월 화상회의)	중국의 CBDC 프로젝트 현황 등

자료: 한국은행

##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대해 한국은행 정책경험 공유 강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정책 및 외환보유액 관리 등 중앙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경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금융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89)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5월에서 9월로 연기되어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을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일본과 베트남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2021년에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담당한다.

90) SEACEN 센터 소장의 조직 및 급여체계 개편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인력 채용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과 스리랑카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지식교류 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sup>91)</sup>은 사전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수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중앙은행 간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내실있는 정책자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몽골(2017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지식교류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등 그동안 동남아시아에 치중되었던 사업을 북방국가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한 국제행사인 「2020 북방포럼」(10월 30일)에서 6개 북방국가<sup>92)</sup>와 「중앙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III- 26. 지식교류 프로그램(KPP) 실적 (2020년 중)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베트남	외환보유액 관리 관련 법적 체계 및 투자 프로세스 강화
캄보디아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 운영
몽골	공급교란 및 외부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전략
네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스리랑카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정책수단 및 데이터 수집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자유화 및 외환정책

자료: 한국은행

또한 SEACEN 센터와의 공동연수(11월)를 회원국 중앙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표 III- 27. SEACEN 센터 온라인 공동연수 실적 (2020년 중)

주제	참가 인원
Monetary and Macroeconomics Policy in the time of COVID-19 (11월 16~20일)	14개국 41명

자료: 한국은행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확대

한국은행은 2020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금 2억 6,178만 달러, 출연금 2,914만 달러 등 총 2억 9,092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제18차 재원보충에 따른 출자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가입 관련 출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재원보충 등에 따라 출자·출연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총 172억 달러에 이른다.

한편 2020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용자 규모는 9억 6,997만 SDR이다. 이 가운데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용자 규모는 1억 4,335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sup>93)</sup>에 따른 용자 규모는 8억 2,662만 SDR이다. 2020년 중 총 용자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5,251만 SDR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차입협정에

91)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등의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92)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벨라루스

93)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

따른 용자가 4,505만 SDR 감소한 반면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용자가 5억 9,756만 SDR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 28.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백만 달러)

	2019년 말 (A)	2020년 말 (B)	증감 (B-A)
출자금	15,916	16,178	262
IMF	11,861	11,861	0
IBRD	287	311	24
IDA	1,982	2,136	154
ADB	293	293	0
AfDB·AfDF	504	539	35
AIIB	748	748	0
CABEI	0	34	34
기타	241	256	15
출연금	976	1,005	29
IMF	72	78	6
IBRD	34	34	0
ADB·ADF	648	671	23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타	21	21	0
출자·출연금 합계	16,892	17,183	291

자료: 한국은행

표 III- 29. IMF에 대한 용자 현황

(백만 SDR)

	2019년 말 (A)	2020년 중		2020년 말 (D=A+B-C)	증감 (D-A)
		용자(B)	상환(C)		
NAB	188	0	45	143	-45
PRGT	229	600	2	827	+598
합계	417	600	47	970	+553

자료: 한국은행